

+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피겨/피규어(figure)의 다듬은 말: 정밀 모형
- 컴필레이션(compilation)의 다듬은 말: 선집
- 미디어 파사드/미디어 퍼사드(media facade)의 다듬은 말: 외벽 영상
- 러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의 다듬은 말: 흥행 보수
- 테트라포드(tetrapod)의 다듬은 말: 네발 방파석

‘피겨/피규어(figure)’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을 뜻한다. 이를 ‘정밀 모형’으로 다듬었다. ‘컴필레이션(compilation)’은 여러 책이나 영화, 음반에서 내용을 딴 모음을 가리킨다. 이를 ‘선집’으로 다듬었다.

건물 외벽에 발광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인 ‘미디어 파사드/미디어 퍼사드(media facade)’는 ‘외벽 영상’으로 다듬었다. ‘러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는 영화나 연극, 뮤지컬 등에 참여하는 감독이나 배우, 제작진이 출연료 외에 흥행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흥행 보수’로 다듬었다.

‘테트라포드(tetrapod)’는 중심에서 사방으로 발이 나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주로 파도나 해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항구의 방파제 좌우 바닷속에 설치한다. 이를 ‘네발 방파석’으로 다듬었다.

2.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2.1. 2015년 제4회 원내 토론회

- 주제: 언어 유형론과 국어학 - 그 빛과 그늘
- 발표자: 목정수(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일시: 2015년 11월 23일(월) 16:00~17:3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목정수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언어 유형론과 국어학’이라는 주제로, 언어 유형론이 국어학에 던져 주는 빛과 그늘을 살펴보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모어를 다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어를 외부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모어와 외국어의 대조적 관점에서 모어를 보는 것이다.”라는, 일본 학자 아사리 마코토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어학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언어 유형론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의 인도유럽어(영어, 프랑스어 등)를 기준으로 한 한국어의 언어 유형 논의에서 한국어의 중요한 특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비교 준거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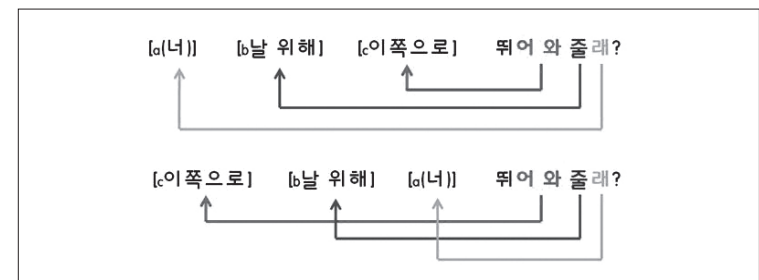
기존의 언어 유형론 논의에서, 한국어의 특성으로 흔히 ‘1. 어미와 조사가 발달된 언어이다. 2. 한국어에는 관계 대명사가 없다. 3. 한국어는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4.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쉽게 생략될 수 있는 언어이다. 5. 한국어는 대우법(경어법, 높임법)이 정밀하게 발달했다.’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영어나 프랑스어를 기준으로 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일 뿐이다. 만약 ‘한국어를 기준으로 한 영어나 프랑스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언급한다면 ‘1. 영어는

조사가 없다. 2. 영어는 관형사형 어미가 없다. 3. 프랑스어는 관형사가 없고, 형용사의 행태가 동사보다 명사에 더 가깝다. 4. 프랑스어는 주어가 필수적인데, 인칭대명사의 성격이 일반 명사구와 다르고 어미와 유사하다. 5. 영어는 대우법이 발달하지 않았다.’와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논의할지에 대해 선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어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들은 개별화된 속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별 속성들 간의 상관속(相關束)으로 포착해야 하며, 비교 대상의 언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들의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범언어적으로 형용사의 유형론을 논할 때 일부 학자는 한국어의 형용사만을 여러 언어의 형용사 범주와 대조하는 일이 많은데, 그보다는 한국어의 형용사뿐만 아니라 관형사까지 포괄하여 여러 언어의 형용사 범주와 대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형용사’는 ‘기술동사/상태동사’나 ‘주관동사/심리동사’라는 동사 범주로 하위분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유형론 연구에서 한국어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어순이지만, 한국어에서 어순의 문제는 그리 단순치 않다고 설명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었다.



발표자는 위 두 문장 중 더 자연스러운 것은 위의 문장(대칭적 구조)이며, 아래의 문장은 그보다 조금 덜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뛰어와 줄래?’는 자연스럽지만, ‘뛰어 주어 올래?’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서술어 내 단어들의 순서는 엄격한데, 성분(constituent)들의 순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어순 유형론 중 타동성 유형론 논의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기본인데, 한국어의 경우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음 문장들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 가.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 당신을 만나니 고향 생각이 절로 나는군요.
 다. 잠이 잘 안 오나 보구나.
 라. 왜 그렇게 힘이 들어 한대요?
 마. 시간 있으세요?
 바. 여자 친구 소개 좀 해 드릴까요?
 사.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또 발표자는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 ‘이/가’가 붙은 성분(‘가형 성분’)을 무조건 주어로 보는 눈뿔 현상이, ‘가형 성분’을 목적 보어(일반적 용어로는 ‘보어’)로 선택하는 구문을 타동성 논의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기술동사나 주관동사의 제2논항인 ‘가형 성분’(“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코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에서 ‘호랑이가’)은 서술어와 함께 서술절(predicate clause)이 아닌 서술어구(predicate phrase)가 되며,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 진성 주어는 제1논항 성분이 담당하는 것이고 제2논항은 비주어, 즉 ‘목적 보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발표자는 한국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외국어라는 잣대를 통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형론적 비교 작업은 국어학의 필수적인 방법론이 되지만 유형론적 논의에 휩싸여 한국어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기술의 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목정수 교수의 발표 후 ‘주어+목적어+서술어’를 정의하는 태도는 유형론에서 일정하게 합의된 것이 있는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와 같은 심리동사 구문에서 ‘호랑이가’를 ‘목적보어’(“나는 호랑이를 무서워한다.”라는 구문과의 관련에서)로 보기보다는 ‘보어’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은지, “코끼리는 코가 길다”와 같은 소위 주격 중출 구문을 ‘독립어+주어+서술어’로 분석하는 것이 어떤지, 구어 중심 문법 기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어 유형론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고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해석이 수반된 유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감하며 원내 토론회를 마쳤다.

2.2. 2016년 제1회 원내 토론회

- 주제: 한국수어 바로 알기
- 발표자: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
- 일시: 2016년 2월 22일(월) 16:00~17:3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성옥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가 ‘한국수어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언어 분석 이론에 기반을 둔 수어의 기본적인 특성과 한국수어의 특징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수어는 단순히 음성언어를 보조하는 동작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언어의 보편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그 예로,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어휘에 대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수어 표현이 모두 다르다. 이를 통해 수어에도 자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장실’을 표현하는 수어가 세대의 변화에 따라 ‘변소’에서 ‘W.C.’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보편적 언어처럼 역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수어는 창조성, 전위성, 분절성 등의 언어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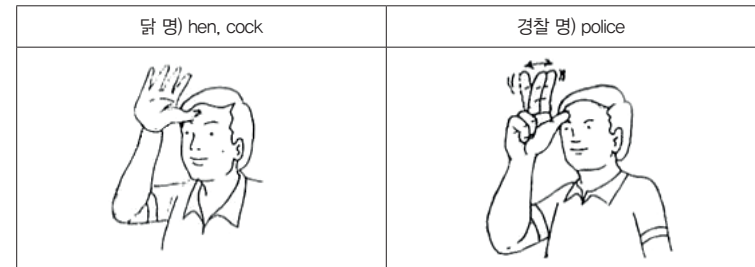
발표자는 수어가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 등과 같은 음성 언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수어의 시각 언어적 특성으로는 공간성, 동시성, 비수지기호의 문법적 기능, 가역성 등을 들 수 있다.

공간성이란 수어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자체가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화와 맥락 안에서 공간은 여러 대명사로 활용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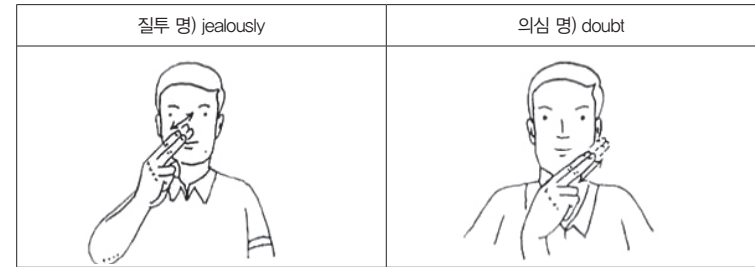
동시성이란 수어소가 동시에 조직되어 단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장 구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어로 “자동차가 가다”라는 문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자동차+가다’의 두 단어를 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나타내는 수어와 ‘가다’를 동시에 표현한다.

비수지기호의 문법적 기능은 표정이나 화자의 시선 처리 등이 대화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배가 아프다.”라는 문장을 표현할 때 단순히 표현하면 “배가 아프다.”이지만 아픈 표정과 함께 표현했을 때는 “배가 아주 아프다.”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수어 표현이라도 표정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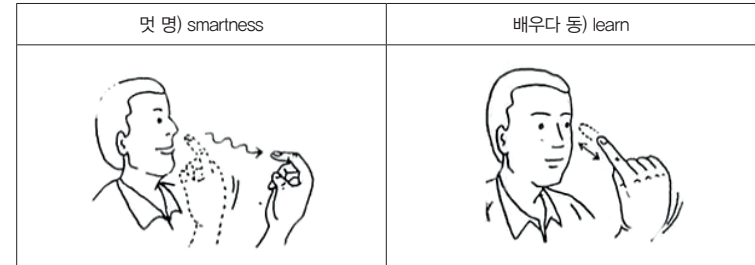
가역성이란 수어의 동작이 반대로 이루어질 경우 문법적으로 반의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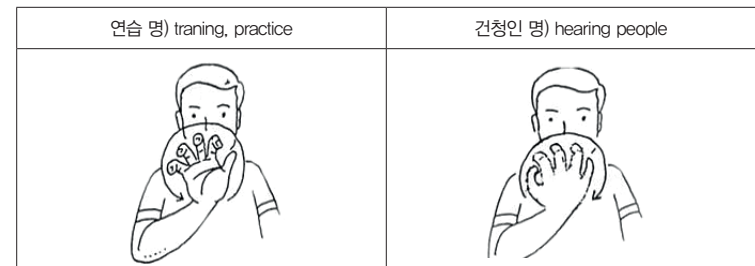
[그림 1] 수형 대비 - 닭/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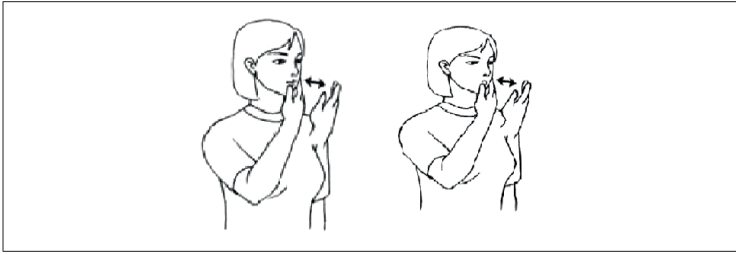
[그림 2] 수위 대비 - 질투/의심



[그림 3] 수동 대비 - 멋/배우다



[그림 4] 수향 대비 - 연습/건청인



[그림 5] 비수지기호 대비 - 귀머리/아갑다

한국수어도 음성 언어처럼 최소대립쌍을 통해 구분할 수 있으며, 의미의 변별성이 생긴다. 발표자는 이를 수위, 수형, 수동, 수향, 비수지기호 대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수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주어와 관형어의 관계 등을 표현하거나 이를 모두 포함한 복문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청각장애인들에게 올바른 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발표가 끝난 후 실제 농인이 구사하는 수어의 어휘 수, 청인과 비교했을 때의 실사용 어휘 수, 수어의 국제적 의사소통 가능성, 한국어와 같이 존대 표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한국수어의 언어 보편적인 특성과 시각 언어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하나의 언어로서의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며 원내 토론회를 마쳤다.

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검색: 검색어 ‘역대’

- 제124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안(2015. 12. 2.)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33차 심의 확정안(2015. 12. 11.)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34차 심의 확정안(2015. 12. 18.)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5년 제35차 심의 확정안(2015. 12. 24.)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1차 심의 확정안(2016. 2. 5.)
- 제125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결정안(2016. 2. 24.)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2차 심의 확정안(2016. 3. 4.)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2016년 제3차 심의 확정안(2016. 3. 11.)

4. <2015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 발표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앞새, 푸르르다, 이쁘다, -고프다’ 등 11항목의 어휘와 활용형을 표준어 또는 표준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5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발표하고 2016년 1월 1일 자로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하였다.

국립국어원은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어문 규범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 규정을 현실화하고 복수 표준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복수 표준어 추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어규범 정비위원회, 국어심의회 등 여러 단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1. ‘이쁘다’, ‘예쁘다’ 등 복수 표준어 인정

그동안 ‘이쁘다’는 비표준어로서 ‘예쁘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쁘다’도 ‘예쁘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마실’, ‘이쁘다’, ‘찰지다’, ‘-고프다’ 등 모두 4항목이다. 이 가운데 ‘마실’은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과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는 뜻에 대해서만 표준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 오던 것(‘예쁘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이쁘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

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표 1 2015년 표준어 추가 사정: 복수 표준어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비고
마실	마을	•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의 의미에 한하여 표준어로 인정함.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의 의미로 쓰인 ‘마실’은 비표준어임. • ‘마실꾼, 마실방, 마실놀이, 밤마실’도 표준어로 인정함.
이쁘다	예쁘다	‘이쁘장스럽다, 이쁘장스레, 이쁘장하다, 이쁘디이쁘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찰지다	차지다	사전에서 <‘차지다’의 원말>로 풀이함.
-고프다	-고 싶다	사전에서 <‘-고 싶다’가 줄어든 말>로 풀이함.

4.2. ‘푸르르다’ 등 뜻과 어감이 다른 말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

그동안 ‘푸르르다’는 ‘푸르다’로 고쳐 써야 했으나 ‘푸르르다’와 ‘푸르다’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푸르르다’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꼬리연, 의론(議論), 이크, 앞새’ 등 모두 5항목이다.

표 2 2015년 표준어 추가 사정: 별도 표준어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꼬리연	가오리연	꼬리연: 긴 꼬리를 단 연. (※ 가오리연: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어 꼬리를 길게 단 연. 띄우면 오르면서 머리가 아래위로 흔들린다.)
의론	의논	• 의론(議論):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 (※ 의논(議論):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 • ‘의론되다, 의론하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이크	이키	• 이크: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키’보다 큰 느낌을 준다. (※ 이키: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끼’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앞새	앞사귀	• 앞새: 나무의 앞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앞사귀: 날날의 앞. 주로 넓직한 잎을 이른다.)
푸르르다	푸르다	• 푸르르다: ‘푸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푸르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 ‘푸르르다’는 ‘으불규칙용언’으로 분류함.

4.3. ‘노랑네’, ‘동그랑네’, ‘조그망네’ 등 비표준적인 활용형을 표준형으로 인정

그동안 ‘말다’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ㄹ’을 탈락시켜 ‘(잊지) 마/마라’와 같이 써야 했으나, 현실의 쓰임을 반영하여 ‘(잊지) 말아/말아라’와 같이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쓰는 것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노랑다, 동그랑다, 조그망다’ 등과 같은 ㅎ불규칙용언이 종결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ㅎ’을 탈락시켜 ‘노라네/동그라네/조그마네’와 같이 써야 했으나, 불규칙활용의 체계성과 현실의 쓰임을 반영하여 ‘노랑네/동그랑네/조그망네’와 같이 ‘ㅎ’을 탈락시키지 않고 쓰는 것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복수의 표준형으로 인정된 말은 ‘말아, 말아라, 말아요’처럼 ‘말다’에 ‘-아(라)’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과 ‘노랑네, 동그랑네, 조그망네’처럼 ㅎ불규칙용언에 어미 ‘-네’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지 않는 활용형 등 모두 2항목이다.

표 3 | 2015년 표준어 추가 사정: 추가 표준형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비고
말아 말아라 말아요	마 마라 마요	‘말다’에 명령형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노랑다 동그랑다 조그망네 ...	노라네 동그라네 조그마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ㅎ불규칙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 ‘그렇다, 노랑다, 동그랑다, 뿌옇다, 어땀다, 조그망다, 커다랗다’ 등등 모든 ㅎ불규칙용언의 활용형에 적용됨.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 그 결과 2011년에 ‘짜장면, 맨날, 눈꼬리’ 등 39항목을 추가하였고, 2014년에는 ‘삐지다, 놀잇감, 속얇이, 판지’ 등 13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 11항목은 2015년에 열린 국어심의회

(위원장 서정목)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범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해 시행해 온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5. 국립국어원·SBS 간 업무 협약 체결

5.1. 국립국어원, SBS와 함께 방송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과 에스비에스(대표이사 김진원, 이하 SBS)는 3월 10일 오후 4시, SBS 방송센터(목동)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방송언어의 발전이 한국어와 방송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방송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 두 기관은 방송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기구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오는 10월 공동 연구 발표회를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다.

5.2. 공동 연구 경험을 토대로 방송언어문화의 발전 방향 제시

국립국어원과 SBS는 이전에도 세 차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05년 방송언어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2010년 월드컵 중계 때 축구 용어, 지명, 선수 이름 등의 우리말 표기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또 2011년에는 국립국어원·SBS·경기도교육청 세 기관이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어 청소년들의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2005년 방송언어 공동 연구 협약 이후 2006년부터 6회에 걸쳐 방송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 연구회는 앞선 연구 발표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회의 소통을 저해하는 다양한 언어생활 면면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여 문화융성의 첫걸음인 사회 통합을 위한 방송언어문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SBS 방송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 이력

- 제1회 방송언어의 경어법 개선을 위한 연구(2006년)
- 제2회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언어(2007년)
- 제3회 방송언어의 품격 향상을 위한 아나운서 국어 사용 연구(2008년)
- 제4회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연구(2009년)
- 제5회 방송언어와 국어 교육(2010년)
- 제6회 방송언어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연구(2011년)

국립국어원과 SBS는 공동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방송언어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수준 높은 방송언어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2016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6.1. 2016년 상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장소: 국립국어원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나. 교육 일정(2016년 상반기)

- 3월 1기(제329기): 2016. 3. 7.(월)~3. 11.(금)
- 3월 2기(제330기): 2016. 3. 14.(월)~3. 18.(금)
- 4월 1기(제331기): 2016. 4. 18.(월)~4. 22.(금)
- 4월 2기(제332기): 2016. 4. 25.(월)~4. 29.(금)
- 5월 1기(제333기): 2016. 5. 9.(월)~5. 13.(금)
- 5월 2기(제334기): 2016. 5. 16.(월)~5. 20.(금)
- 6월 1기(제335기): 2016. 6. 13.(월)~6. 17.(금)
- 6월 2기(제336기): 2016. 6. 20.(월)~6. 24.(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수강료): 100,000원(식비 20,000원 별도)

마. 연락처: 02-2669-9662, 9729, 9752 (전송: 02-2669-9787)

6.2.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주요 강좌 내용

가. 국어 어문 규범 분야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과 실례 익히기
-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말과 구별해야 할 말 익히기

나. 글을 바르게 쓰기

- 공문서 바로 쓰기: 공문서에서 흔히 잘못 쓰는 유형별로 그 사례를 찾아 보고 바르게 고치기. 고쳐 쓰면 좋을 단어와 문장 표현 제시
- 글쓰기 지도: 수강생이 직접 쓴 글을 첨삭하여 지도
- 우리말 다듬기: 일본어식 한자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외국어, 비속어 등 국어 순화의 대상과 결과, 바른말과 쉬운 말 제시

다. 말을 바르게 하기

- 표준 발음: 틀리기 쉬운 발음 중심의 표준 발음법 소개, 실례 익히기
- 협력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효과적 방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듣고 말하기 등의 훈련

라. 국어와 문화 관련 특강

- 인문학 강의, 바람직한 언어 환경(일상 언어, 방송 언어, 길거리 간판, 안내문, 공공언어 바르고 쉽게 쓰기 등), 우리말에 나타난 한국인의 문화, 언어와 심리, 말과 정신의 관계 등
- 특강 주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2016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7.1. 2016년도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3회)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16. 2. 1.	'16. 7. 29.	'16. 11. 4.	
심사 신청 접수	'16. 3. 2~ '16. 3. 15.	'16. 8. 31~ '16. 9. 9.	'16. 12. 5~ '16. 12. 16.	
심사 결과 발표	'16. 4. 29.	'16. 10. 28.	'17. 2. 3.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자격증 교부	'16. 5월 중순	'16. 11월 중순	'17. 2월 말	주소지로 등기 우송

7.2. 2016년도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일정(2회)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비고
심사 계획 공고	'16. 2. 1.	'16. 7. 29.	'16. 11. 4.	
심사 신청 접수	'16. 3. 2~ '16. 3. 15.	'16. 8. 31~ '16. 9. 9.	'16. 12. 5~ '16. 12. 16.	
심사 결과 발표	'16. 4. 29.	'16. 10. 28.	'17. 2. 3.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자격증 교부	'16. 5월 중순	'16. 11월 중순	'17. 2월 말	주소지로 등기 우송

※ 불가피한 경우 위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매회의 심사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로 27만여 농인 언어권 보장

8.1. 2013년 발의,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12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예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국수어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수어 통역 지원으로 농인들의 일상생활 편의가 증진되는 등 전반적인 농인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인 27만 명(2014년 말 기준)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인들은 정보 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 계층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실제로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10.9점)는 청인 학생(16.7점)의 65% 정도에 불과하다(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 2014년 국립국어원). 이는 농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8.2.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의사소통 환경 개선에 기여

이번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 한국수어의 연구와 조사,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한국수어 실태 조사를 통해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언어 현실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수어 교재 개발, 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도 규정되어 있어 한국수어의 보급이 촉진되고 수어 통역 지원을 통해 농인들의 사회 활동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3. 한국수어 실태 조사를 통한,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가능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언어권에서 농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농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언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 인사이동

9.1. 임용

- 김수현(학예연구사 시보): 신규 임용, 한국어진흥과 근무(2월 24일)
- 이나래(한시임기제 6호): 한시임기제공무원 재임용(2016년 3월 10일 ~2016년 11월 9일)

9.2. 전보 발령

- 홍용택(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기획운영과(1월 1일)
- 서광철(서기관): 교육연수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2016년 2월 2일 ~2016년 3월 31일)
- 이유원(학예연구사): 어문연구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실(3월 3일)
- 채영주(행정주사보): 언어정보과 → 기획운영과(1월 11일)
- 김미경(행정서기): 공공언어과 → 어문연구과(1월 11일)
- 김정선(행정서기): 어문연구과 → 언어정보과(1월 11일)

9.3. 승진

- 김세훈(공업주사): 공업주사보 → 공업주사(3월 2일)

9.4. 휴직

- 박미영(학예연구사): 육아휴직 연장(2016년 3월 1일~2017년 2월 28일)
- 최보영(행정서기): 육아휴직(2016년 3월 24일~2017년 3월 23일)

9.5. 퇴직

- 김원희(학예연구관): 의원 면직(1월 11일)
- 박주화(한시임기제 6호): 근무기간 만료(3월 1일)